

보도일시 (인터넷) 2025. 6. 19.(목) 10:00,
(지면) 6. 19.(목) 조간

배포 2025. 6. 18.(수) 16:00

동해해수청, 우기 대비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선제적 대응으로 재해 예방 총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채균)은 여름철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항만·어항 건설현장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후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강풍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해청 소관 건설현장 및 항만시설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침수, 구조물 파손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항만 기능의 중단 없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해·묵호항 내 항만운영시설, 부두, 방파제 등 항만 내 주요 기반시설과 건설현장 7개소이다. 노후화된 구조물의 균열, 배수 체계의 이상 유무, 건설현장 수방대책 수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 시 긴급 보수 조치를 즉각 시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요 기반시설과 건설현장에 대한 면밀한 안전점검을 완료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책임자	과 장	장유비 (033-520-6251)
		담 당	주무관	이영준 (033-520-6262)
		담당자	주무관	배동성 (033-520-6261)